

다니엘 K. 다르코 박사, 루가 복음, 11차, 순회 사역, 예수, 여성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루가복음 8:1-21

© 2024 댄 다르코 (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이것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1, 순회 사역, 예수, 여성,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루가복음 8:1-21.

루가 복음에 대한 Biblical eLearning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죄 많은 여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설명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교류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한 장면에 있었고, 바로 바리새인 시몬이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에서 죄 많은 여자로
알려진 여자가 예수님과 접촉했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몸짓을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의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왔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 여자에게 용서와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갈릴리 지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해 알게 될 것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기록할
직접적인 가르침의 담화는 비유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8장 1절에서 21
절까지의 다음 몇 구절을 비유로 가르치고 있다고 부르겠습니다.

이 세션을 진행하면서, 이 복음이 여행 이야기의 간략한 요약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진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하겠습니다. 그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 바로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아는 예수에 대한 다른 비유와는 달리, 이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정교한 의미를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마치 이 비유가 그가 전하고 싶어하는 핵심 문제를 전달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는 어린 양의 비유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장면에서 형제들, 예수의 형제들이 나타나고, 그는 형제들이 그를 보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는 그의 진정한 친족은 그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립할 것입니다.

비유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8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 봅시다. 누가 비유를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저는 ESV에서 읽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도시와 마을을 돌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했습니다. 열두째 날에는 그와 함께 있었고 악령과 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추사 의 아내 요안나 , 하롤드의 집사, 수산나,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재물로 그들을 부양했습니다.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제가 계속하기 전에 몇 가지 빠른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함께 한 파티에서 이동하던 예수는 도시와 마을에서 계속 이동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고 선포하는 것은 강력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지리적 왕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현현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 마음, 정신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서

행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세 가지 지배적인 적에게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 죽음,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러 오셔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그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는 도시와 마을에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력하고 나타납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복음은 듣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가져다주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회복, 용서, 평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하나님을 만나 온전함을 받는 자들을 해방할 때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온다. 루가는 예수께서 도시와 마을을 여행하실 때 혼자 가시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루가가 사도라고 불렀던 열두 제자와 함께 갔다.

팀에는 12명 중에 여성도 몇 명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팀에서 여성의 역할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이는 루크가 여기서 하려는 두 가지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의 맥락에서 죄 많은 여자에 대해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여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사역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누가는 또한 도시와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누가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서 혜택을 받은 여성들이라고 보여줍니다. 누가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는가? 그들은 이 사역이 가져오는 것의 수혜자이자 수혜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 여성을 살펴보고겠습니다.

특히 세 사람이 거론됩니다. 우리가 이 여성의 프로필을 생각할 때, 루가는 그들이 먼저 막달라 마을의 마리아라는 여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성은 종종 막달라 마리아, 즉 막달라의 마리아로 불립니다.

그리고 요안나라는 또 다른 여자가 있고, 또 다른 수산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세 이름을 재빨리 언급하고, 그다음에 다른 많은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세 사람이 매우 저명한 여성임을 나타냅니다. 누가는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유익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는 그들이 악령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악령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루카 복음서에서 큰 지위, 금전적 힘, 올바른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악령의 영향을 받는 것을 막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필요성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특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여인은 일곱 귀신이 쫓겨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오늘날 어떤 저명한 여인이 일곱 귀신이 들렸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 귀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봅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어떤 낙인을 찍을지 상상해보세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지각과 관계적 문제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과거를 현재에 투사하여 그녀의 미래 행동 방향을 결정할지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누가는 예수께서 그녀를 일곱 악령으로부터 고쳐 주셨다고 말하고 싶어하며, 그것이 끝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서에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루크는 나중에 그녀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것입니다. 요한은 그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메시지가 마음에 든다면, 그는 실제로 부활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장면 밖에 있는 남자들에게 전하기 위한 한 여성에게 주어졌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여성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와 다른 여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중요한 여성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가 언급한 두 번째 여성, 요안나를 보세요.

그는 우리에게 요안나가 추자의 아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합니다. 요안나의 남편은 헤롯의 행정관이었고, 아마도 갈릴리의 헤롯 안티파스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저명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파의 아내인 요안나가 시스템에서 저명한 여성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녀를 보든,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의 관리자일 수도 있고, 분봉왕 헤롯의 관리자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인물이 누구이든, 루크는 예수를 따르는 저명한 여성들이 있었고, 그들이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합니다. 사역은 매우,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열두 제자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실제로 봉사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리스어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물질로 봉사했다는 것을 말하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이 여자는 나중에 23장에서 예수의 처형을 목격하기 위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 중 두 명은 23장에서 장벽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안나는 부활을 목격하는 첫 번째 사람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관습과 관련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사역을 하는 동안 여성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누가는 기혼 여성이 예수를 따랐다고 말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혼 여성이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랍비 문헌을 살펴보면 여성이 랍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대한 교사로 인식한 여성들이 이 점에서 지원해야 할 사람을 그에게서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의 필요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누가는 재빨리 움직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가져오실 것입니다. 비유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강의에서 저는 비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기 전에, 특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비유를 다룰 때 비유에 대한 소개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화란 무엇일까요? 더 넓은 의미에서 우화는 비유이며 비교입니다. 나란히 있는 무언가인 para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우화에서 예수님은 청중을 설득하고 설득하기 위해 대조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측면을 밝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받고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비유를 매우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지만 비유입니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실제 상황에서 발췌하여 시나리오를 재구성하여 비교적 생각을 하고, 생각의 패턴을 자극하고, 청중에게 자신의 요점을 매우 명확하게 전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는 익숙한 것들을 집어서 비유를 끌어내어 그의 가르침에 적용하여 사람들이 잠재의식에 익숙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예수께서 전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 내용, 본질을 상상하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서에서 네 가지 유형의 비유를 제시합니다. 누가는 그것들을 보여주고 누가는 우리에게 모든 복음서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흥미로운 비유를 몇 가지 줄 것입니다.

다윗에 따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사용하시는 네 가지 유형의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화의 형태로 제시되는 비유, 비유의 형태로 제시되는 비유, 본래의 비유는 대개 유추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한 사마리아인과

함께 보게 될 모범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네 가지 유형의 비유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명확하면서도 청중의 상상력에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저는 CH Dodd의 비유에 대한 정의를 좋아합니다.

그가 우화와 그 정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추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림에서 진실을 보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썼을 때. 다시 말해, 예수의 가르침에 나오는 개념을 따르는 대신, 예수는 개념에 첨부된 이미지를 주어서 당신이 구체적인 그림으로 개념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는 위대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보스턴 대도시권에 있는 자매 학교 중 한 곳에서 전학 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그 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성경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하는 철학 학생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가르친 수업에서 그 학생은 보스턴 대도시권에 있는 그 학교의 전임 교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의 철학 교수는 예수의 우화에 대한 과정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철학 교수가 무신론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예수가 위대한 교사라고 설명하는 교사에게 전념하는 전체 수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교사가 비유로 개념을 전달하는 예수의 능력을 포착할 수 있다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무신론자 교수는 고든 칼리지에서 제가 가르쳤던 이 학생을 포함하여 자신의 학생들에게 예수에 대해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의 비유를 사랑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학생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비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주의 깊게 듣고 비유를 통해 전달되는 강력한 메시지와 누가 이 메시지를 글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식에서 보여주는 문학적 예술성을 이해하십시오.

하지만 8장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많은 비유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유 목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비유를 살펴보면, 누가복음이 여러분이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고 싶은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비유는 가장 기억에 남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비유입니다.

그럼, 루크에게만 있는 우화의 간단한 목록을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 루크가 쓴 우화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루크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두 채무자의 우화에 대해 쓴 유일한 사람입니다. 루크는 이 시리즈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우화에 대해 이야기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루크는 우리에게 나타나 도움을 요청하는 불행한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 우화를 말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부자 바보 기독교 모금가들은 이 우화를 좋아합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연회에 놓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그 비유를 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네, 누가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14장에서 탑을 쌓는 사람과 전쟁에 나가는 왕에 대한 우화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잃어버린 동전이나 드라크마에 대한 우화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유 중 하나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해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면, 왜 그것이 논란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부자와 나사로의 우화를 이야기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청지기의 보상, 스데반의 보상에 대한 우화입니다.

오직 누가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준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내가 공화당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쓰지 않는 루가의 비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기억에 남는 유일한 비유입니다. 루가의 비유를 살펴보면, 제가 앞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구체적인 그림으로 깊은 개념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려는 것은 이미지를 더 명확하게 만들어서 내용을 더 명확하고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만큼 훌륭한 교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만큼 훌륭한 교사를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한 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 비유를 통해 전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고, 마을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왔을 때, 그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자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 싹트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것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새들은 바위에 떨어졌고, 그것이 자라면서 말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습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새들은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고, 가시덤불이 그것과 함께 자라서 그것을 질식시켰습니다.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서 백 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는 외쳤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의 지팡이가 그에게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물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니, 이는 그들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에 있는 자들은 들은 자니라.

그러면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니 이는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요 바위 위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는 자니 이들은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니라.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듣는 자요, 길을 가다가 인생의 근심과 재물과 쾌락에 질식하여 열매가 익지 아니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에 굳게 붙잡고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씨앗이 떨어진 땅에 우리의 주의를 이끅니다. 땅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받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땅을 이미지로 사용하면서 초점이 됩니다. 땅이 좋으면 씨앗이 떨어지고 씨앗은 자랄 것입니다.

씨앗이 떨어진 땅의 상태가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존력을 결정합니다. 이 비유에서 수용과 왕국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위치인 땅이 눈에 띕니다.

예수님은 삶의 소중한 즐거움과 헌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그는 열매를 받는 정직하고 좋은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는 열매를 받았고 인내심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것을 한정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의 이유를 말씀하실 때, 그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땅이 중요한 만큼, 그들은 씨앗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씨앗은 말씀입니다. 씨앗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메시지는 때때로 말씀으로 묘사됩니다. 특히 누가복음 2권의 사도행전을 보면, 세상에 퍼지는 것은 말씀입니다. 씨앗은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 비유에서 몇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 그래픽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첫째, 그는 한 씨앗이 길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씨앗은 발에 짓밟혔습니다.

공기의 폭발이 그것을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온 새는 악마입니다. 여기서, 악마론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루크가 자신의 세계관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루크의 세계관에서 악마는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악령으로부터 치유됩니다.

누가의 세계에서 악마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항하여 일하는 적이며 하나님의 행동 방향을 훼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는 적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께서 비유를 꺼내실 때, 독자들에게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것은 리셉션에서 악마의 역할입니다. 네,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악센트로 보아 당신은 아프리카인이고 악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첫째, 저는 아프리카인이라 맞을 겁니다. 둘째, 저는 악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네, 루크가 악마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루크도 아프리카인일 겁니다. 하지만 잠깐, 루크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루크에게 있어서 악마는 예수를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려는 일을 그에게서 빼앗게 했습니다.

악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신 본질과 존재에 반하여 파괴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악마는 많은 사람들의 복지와 안녕을 훼손하려고 돌아다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에 개입하여 그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악마가 매우 교활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악마와 악마에 대한 모든 개념이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악마에 대한 이상한 점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는 서반구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어려운 생각입니다. 글썄요, 저는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하려는 것은 루크가 이 메시지에서 전달하려는 것을 흐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지면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가 어디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지 보라. 그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빼앗아가서 그들이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나중에,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교에 파견하실 때, 그들에게 마귀와 그의 세력에 대한 권세를 주실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중심적인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의 영 우주론에서, 악령들은 사람들의 삶에서 활동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가지고 계신 것을 사람들에게서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통치하실 때,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고 어둠의 세력에 의해 묶여 파괴된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것이지만, 그들의 마음 상태가 올바르지 않을 것이므로,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유적으로 바위에 떨어진 사람은 습기가 없어서 자라다가 말라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습기가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그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믿지만, 시험의 때, 폭풍의 때, 그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재빨리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 저는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압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같다면, 나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몇 명 봤습니다. 그들은 예수 시편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E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 그들은 한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할렐루야를 세 번 외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다시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루크는 말씀이 전파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씨앗이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자라면서 가시와 함께 자랍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시가 그것을 질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설명하실 때, 그는 그들이 듣는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길을 가면서 질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은 질식하는가? 그들은 삶의 걱정과 부, 쾌락에 질식한다. 그래서 열매가 익지 않는다. 이 비유를 보고 내 짧은 사역 기간을 생각하면, 마음의 상태와 말씀이 가시에 떨어지고 걱정과 부가 사람들을 질식시키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사실입니다.

위기가 없을 때에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곤경에 처하는 것을 보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합니다. 저는 파산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데 많은 것을 헌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돈을 벌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그들은 교회에 가거나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질식합니다.

그들은 주변 환경에 질식합니다. 그들은 쾌락에 질식합니다. 그들은 주변 압력에 질식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키워드, 즉 쾌락과 그 주변의 압박이 그들을 열매를 맺고 성숙해야 할 곳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간단한 동사입니다.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숫자로 한정된 유일한 것, 백배를 낳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설명에서 말씀을 듣는 자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굳게 붙잡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인내심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의 비유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을 묘사하고 있으며, 제자들과 여인들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역을 나가면서, 그들은 이러한 환영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실현되는 것을 볼 때 괜찮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이 이것이 사역과 함께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하고 정직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올바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마가 그들을 강탈하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게 낙담하게 만들까요? 아니요. 열매를 보지 못한다면 좌절이 될까요? 네. 여기서 제자들에게 예수가 말하고 누가 묘사한 요점은 예수가 사역이 항상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제자들과 여인들이 듣는 가운데 군중에게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네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 그는 16절로 넘어가서 스스로 설명이 되는 이 비유를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등불을 켜 후 항아리로 덮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합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비밀한 것이 알려지지 아니하고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조심하라, 18절을 주목하라, 그들이 어떻게 듣는지 조심하라.

다시 말해서, 영접입니다. 더 많이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이 주어질 것이요, 없는 자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빼앗길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길가에 떨어진 사람, 바위에 떨어진 사람,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과 다르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구와도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덩불 아래에 빛을 숨길 수 없으니까요. 그것은 드러날 겁니다. 그가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하세요.

아무도 환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그가 앞서 말했듯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다면, 그가 18절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주목하세요.

듣는 자들, 더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이 아이러니를 가지고 놀기 시작한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그가 생각하는 것조차 그가 가진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가 가지고 있다고 추측하고 싶어하는 것조차도 그에게서 빼앗길 것이다.

이때, 군중 속에서, 그가 이 강력한 연설을 하는 동안, 그의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타나고, 마리아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왔지만, 루가가 말했듯이, 군중 때문에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들은 대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당신을 보고자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여기서 전달하는 바를 이해해 주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특정 구절이나 몇 구절을 마치 예수께서 자연적 가족을 싫어하신 것처럼, 또는 예수께서 자연적 가족을 친족 개념이나 하나님의 친족 가정으로 대체하기 위해 오셨다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요점은 여전히 4절에서 시작했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강조하기 위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전체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어린 양의 비유는 당신이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듣지 않고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21절에서 잠깐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시하고 다른 모든 것보다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는 친족을 배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21절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유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 즉 친족 의무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시해야 합니다.

예수는 자연스러운 가족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모든 관계보다 하나님의 왕국을 우선시합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예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구절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하고 어딘가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면, 잠깐만요. 그게 여기서 요점이 아닙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형제들은 예수의 형제로 불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의 친족이었지만, 여기서 그는 우선순위, 듣기, 행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가톨릭-개신교 논쟁을 언급하는 데 사용했던 영역 중 하나입니다.

형제에 대한 언급은 마리아가 자녀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저는 유아기 이야기에서 8장의 이 언급에서 루크가 예수에게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양한 교회 전통에서 형제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통적인 가톨릭 관점은 그것이 사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동방 정교회 관점은 그것이 그의 이복형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마리아보다 먼저 자녀를 두었고, 이들은 그의 이복형제들이었다. 전통적인 개신교 관점은 친형제일 것이다. 그리스어 본문에 따르면, 사촌이라는 단어인 adelphos는 그 자체로 사용되지 않는다.

드물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맥락에서, 가정의 생물학적 또는 모성적 인물과 관련이 있을 때는 종종 형제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형제일까요? 우리는 추측의 영역에 있습니다. 저는 전통과 다양한 전통이 말하는 것을 존중하지만, 저는 루가복음 8장에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이 마리아가 자녀를 가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다는 전통적인 개신교 관점에 더 기울어집니다.

결국 요셉은 더 이상 그 장면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셉의 자녀들에 대해 많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요셉이 예수보다 나이가 많은 자녀를 남겼다면 요셉이 사망하면 마리아의 책임이 있을까요?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1세기 맥락에서 친족 문제를 탐구하는 경우 검토해야 할 또 다른 문화적 주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여러분이 이 문제의 신뢰를 놓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 누가는 8장을 여행 이야기의 간략한 요약으로 시작하며, 예수께서 도시와 마을을 돌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분과 동행한 여자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저명한 인물인 이 여성들 중 세 명을 재빨리 강조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예수께서 비유로 전하신 왕국의 메시지 중 일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필요성과 마음의 상태가 듣는 사람의 생존력, 성장, 성숙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강조했습니다.

어린 양의 비유는 아무도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듣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우선시할 필요성을 행동으로 촉구합니다.

일시적으로 가족 중 누군가가 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며,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 시리즈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이해하기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따르면서, 당신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스스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길가의 가시덤불 속의 바위에 비유되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좋은 땅에 비유되는 마음일까요? 제 소망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자라며 성숙하여 어린양의 혀에 비친 빛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마태는 이에 대해 말하면서, 마태복음 5:16에서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취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강의 시리즈를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루가 복음에서 새로운 것에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을 그분과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배우는 여정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것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11번째 세션, 순회 사역, 예수, 여성,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루가복음 8:1-21.